금융도시 전북에 날개를!

전북도-한국핀테크지원센터 업무협약 체결
창업기업 멘토링 행사 · 유망기업 발굴 추진

금융도시를 표방한 전북도가 모바일 금융시대에 발맞춰 전북의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손을 맞잡았다.

전북도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지난 31일 핀테크지원센터에서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와 정유신 한국핀테크지원센터장이 참석한 가운데 핀테크 기업발굴 및 성장지원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혁신금융 분야 기업지원 및 사업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상호간 주관 프로그램 추천 및 참여 지원, 핀테크 관련 연구 협조 및 정보 공유, 핀테크 기업에 대한 분야별 자문 및 심사단 참여 등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및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 사항을 정하고, 그 외의 상호협력 가능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현재 국제금융도시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제금융센터 건립 등 금융산업의 내실을 다지고 있으며, 핀테크 및 디지털 금융을 육성하고자 올해 시범사업으로 금융혁신 벤처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금융 신산업 분야 벤처기업에 보육공간 제공, 경영활성화 자금, 역량강화 교육 및 맞춤형 멘토링 등의 혜택을 지원하는 도내 핀테크 지원사업이 이번 협약을 통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도는 인터넷·모바일 금융시대를 맞아 금융에 기술을 더한 핀테크 산업을 집중 육성해 혁신적 금융산업의 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국제금융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전북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북도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11월에 도내지역의 창업자 및 초기 기업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핀테크 창업기업 멘토링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양 기관은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혁신금융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연계사업을 추진해 전북에 거점을 두고 있는 유망 핀테크 기업을 발굴하고 지역에서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우범기 정무부지사는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혁신적 핀테크 서비스를 창출하고 육성하는 대표적인 전문기관으로 핀테크 산업 생태계의 든든한 지원군이다"면서 "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 핀테크 산업이 전라북도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전북도가 금융도시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세계 음식이 한 자리에'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개막 전 세계 발효식품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제17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가 지난 31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가운데 송하진(왼쪽 두번째) 전북도지사가 세계 음식을 체험하고 있다. 〈사진=전북생물산업진흥원 제공〉

전북도, 14개 시군 대상 다함께 돌봄센터 대폭 확대

전북도는 지자체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지역내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일시·긴급돌봄 등에 대응하는 지역 맞춤형 돌봄체계 구축 차원에서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다함께 돌봄센터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만 12세 이하 돌봄이 필요한 아동, 주로 저학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출·퇴근시간, 초등 방과후 등 취약시간대 및 부모 병원 이용 등 긴급상황 발생시 친인척 수준의 일시·긴급돌봄, 방과후 프로그램 연계, 등·하원 지원 등이 주 사업 내용이다. 이 사업은 주로 공공시설인 주민센터, 복지관, 도서관, 보건소 등과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 등을 활용하고, 인력은 경력단절 보육교사, 은퇴교원, 자원봉사, 재능기부, 노인일자리 등을 활용한다.

현재, 전북도는 2018년도에 익산시가 가장 먼저 개소했고, 올해는 상반기 완주군이 3개소 개소, 하반기에 9개소가 개소 및 개소될 예정이며, 2020년도 16개소 등 2022년까지 총 66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은 시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지방비 포함)에서 리모델링비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이용자 실비 자부담(월 최대 10만원 이내), 기타 기업사회공헌 및 기부금 활용 등으로 운영된다.

이 사업은 부모의 소득과 무관하게 전 대상자가 이용이 가능하므로 도내 일시·긴급 돌봄 등이 필요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전북도에서는 계획된 지역에 개소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오늘 게임문화 세대공감축제 '지투페스타' 개막

전북도는 전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과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공동 주최하는 호남지역 최대 게임전시회인 '지투페스타(G2Festa)'를 11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전남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1회는 광주에서 2회는 전북 군산에서 진행한 '지투페스타(G2Festa)'는 올해 전남 순천에서 세 번째 막을 올리게 된다.

'지투페스타(G2Festa)'는 게임문화 세대공감축제(Game Make All Together)로서 전북도 6개, 전남도 7개, 광주 10개 업체를 비롯해 총 23개사의 지역을 대표하는 게임 기업이 참여해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모바일, PC 게임을 비롯해 아케이드 게임 및 보드 게임 등 다양한 분야의 게임 콘텐츠를 선보인다.

전북은 VR 및 모바일 업체인 ▲㈜예쉬컴퍼니 ▲(주)모아지오 ▲(주)토마토브이알 ▲블랙홀게임즈 ▲기어즈소프트(주) ▲온리원게임즈 등 도내 게임기업의 12개 콘텐츠가 관람객을 맞이한다.

이 밖에 장윤정, 오마이걸, 라붐이 함께하는 ▲미니뮤직콘서트, ▲아마추어 e스포츠대회, 코스프레 여신 '스파이럴캣츠'와 함께하는 ▲리그오브레전드 코스튬 플레이 전국대회, 천재테란 이윤열의 ▲게임공감 토크콘서트가 펼쳐질 예정이며 ▲스탬프 투어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들이 무료로 제공되어 온가족이 게임문화를 맘껏 누릴 수 있다.

도 황철호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호남 지역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 게임 콘텐츠 축제인 지투페스타(G2Festa)를 통해 젊은 세대는 물론 가족단위 관람객이 방문하여 대중게임 산업에 대한 관심을 확대시켜야 한다"며 "향후 국내를 대표하는 최대 지역 게임 전시 및 콘텐츠 문화를 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투페스타의 상세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http://g2festa.modoo.at)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는 www.jjmaeil.com에서

전주대, 공기업 · 공공기관 채용 NCS 교육 프로그램 진행

전주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는 최근 전북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정책에 맞춰 'NCS 직업기초능력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2019년 하반기 및 2020년 상반기, 공기업 및 공공기관 취업을 목표로 하는 전라북도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취업 전략과 필기전형 유형별 문제풀이 특강을 제공했다.

NCS 직업기초능력 교육 프로그램은 ▲최신 NCS 채용 동향 분석 ▲ NCS 모의고사 ▲ 유형별 이론 및 문제풀이 등으로 구성되어 취업 준비생들이 실질적으로 공기업 채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왔다.

박균철 대학일자리센터장은 "이번 NCS 직업기초능력 교육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더 높은 취업 경쟁력 갖고,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취업에 성공하고, 명확한 취업 준비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국제교류 통해 상호 실익 창출 '톡톡'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에 신남방 · 신북방 교류지역 대거 참가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 신북방지역과의 상호 협력이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도내 대표 음식·산업축제인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에 전북 신남방·신북방 교류지역이 대거 참가해 우호를 과시했다.

신남방지역의 베트남 닥락성, 인도네시아 서부수마트라주, 신북방지역의 러시아 연해주가 그 대상이다.

이들 3개 지역은 발효식품엑스포 기간 중 16개(닥락성 12, 연해주 3, 서부수마트라주 1)의 부스를 운영하면서 도민들에게 각 지역의 특산품을 소개하고 도내 기업과의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어 상호 간 실익 창출을 도모한다.

단연 눈에 띄는 지역은 베트남 닥락성이다. 2017년 12월 우호협약을 맺은 닥락성은 이번에 22명의 기업인단을 파견했다. 이는 닥락성과의 국제교류를 통해 쌓아온 상호신뢰의 결과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이 행사에 참가했다.

전북도는 우호협약 이후 2년간 베트남 국가특성에 맞고 닥락성 지역에 특화된 국제교류를 활발히 펼쳐왔다.

닥락성이 보유한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공지엥문화'를 전주세계소리축제 무대에 소개하고 청소년 교류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혔으며, 닥락성에서 필요로 하는 농업과 기계산업 기술자를 양성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깊은 신뢰를 쌓아왔다.

이번 러시아 연해주 참가는 지난 9월 전북도-연해주 간 교류의향서를 체결해 농업, 관광, 스포츠 등 분야별 실질적인 교류를 추진키로 한 이후 처음으로 진행하는 사업이어서 의미가 크다.

도는 내년 3월에 연해주에서 개최되는 달아그로(극동농업) 식품박람회에 참가해 태권도, 관광 등 연해주와 분야별 교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수마트라주와는 아직 공식적인 관계를 맺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국제교류 실무부서 간 접촉을 통해 전북을 알리는 사전교감을 통해 이번 참가가 성사됐다.

이강오 도 대외협력국장은 "전라북도는 중앙정부의 신남방·신북방 정책에 힘입어 해당 국가 지방정부와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 및 강화해 나갈 것이며, 이러한 교류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상호 윈윈을 통한 실익 창출이다"면서 강한 기대감과 확신을 내비쳤다.

한편, 전북도는 2017년 12월 베트남 닥락성과 우호협력 관계를 맺으며 9년만에 해외자매우호지역 확대의 포문을 연데 이어 올 5월에는 베트남 까마우성과 우호협약, 12월에는 러시아 연해주와 교류의향서를 체결하면서 교류의 폭을 넓혀왔다.

/김진성기자

꿈을 키워주는 회원 모집(무료)

전주 봉숭아 학당 힐링 웃음교실

학장(강정원)

- 국제여가문화협회(봉숭아학당) 전주학장
- 도내 각 평생교육원 강사
- 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 사무처장
- 한극스피치, 웅변협회 전북 이사
- 도내 각 기관, 단체, 복지관 특강
- 웃음치료사, 노래강사, 스피치지도사, 치매예방지도사, 난타지도사 등

강의분야: 웃음치료, 행복노래, 치매예방, 민요율동, 생활체조, 난타, 레크

※ 참고
① 각 분야 자격증 희망자 취득가능 상담 후 교육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② 남녀, 노소 누구나 희망분야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③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을 하세요
④ 꿈을 키워주는 학습의 길이 있습니다.

국제여가협회. 전주 봉숭아 학당 힐링 웃음교실
전주시 완산구 서완산동 1가 201, (3층)
(바울센터 옆 턱시양복점 건물)
(H · P : 010-2078-4810)

스피치. 면접. 시낭송. 웃음치료
(1,2월 방학특강)

44년의 전통과 경험으로 알차고 꼼꼼하게 지도하는 강사진으로 구성된 스피치, 면접, 연설, 웅변, 웃음치료 등을 지도하는 전문기관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바랍니다.
스피치가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과정구분	성인반, 주말반, 개인지도반
	중,고등반, 초등,유치반(차량운행)
	취업면접반(개인지도)
	회장 인사말, 선거연설 개인지도

- 전주교육대 겸임교수
- 전북대 토론과면접 담당교수 역임
- 전북대,우석대,전주교육대,군산대 과학대 평생교육원 전담교수
- 전북 최초 스피치1호 지도자
- 기관,단체특강 600여회
- KBS TV, MBC TV, JTV 출연자

◎ 대학 평생교육원(지역별 2020년 1학기 모집도 합니다)
전주,완주,진안(전주에서)
남원,장수,순창지역(남원에서)
군산,부안지역(군산에서)
김제,완주지역(전주에서)
익산지역(익산에서)
정읍,고창지역(정읍에서)

(사) 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본부 (부설)
(사) 한국스피치, 웅변협회 전북지부 (부설)
한국스피치 · 면접 · 시낭송 아카데미

위치 : 금암동 백제직업전문학교 옆 삼거리 5층
전화 : (063) 285-6676, 231-6669 (주, 야)